



## 2026 병오년 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丙  
午  
年  
.....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리듯,  
존중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한 해!



명씨대중회장 명 제 태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종친 여러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명씨대중회는 크고 작은 과제 속에서도 종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흔들림 없이 걸음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종중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해 주신 종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오늘의 대중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중회는 종친 간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종중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보는 우리 명씨대중회의 소식과 뜻을 전하는 중심 창구로서, 각지에 흩어져 계신 종친들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중보에 담긴 글과 사진, 종친 여러분의 이야기는 훗날 후손들이 종중의 역사를 되짚어 볼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대중회는 앞으로도 이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족보에 대한 관심이 열어진 것이 현실이지만,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가족 이야기와 성장 과정, 정체성 탐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는 학습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자 족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문의 계보와 세대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중의 기록을 오늘의 환경에 맞게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종친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변의 종친들, 특히 자녀를 둔 종친 가정과 젊은 종친들께 전자 족보의 취지와 활용 가능성을

널리 알려주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중의 역사는 일부의 노력만으로 이어지기보다, 종친 모두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더욱 건강하게 계승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중회 또한 전자 족보가 보다 많은 종친들께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차분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과 말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상징합니다. 우리 명씨대중회 역시 이 기운을 바탕으로, 정체된 곳에 머무르기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 걸음은 서두르기보다, 종친 여러분과 함께 방향을 맞추며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중회는 종친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세대 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젊은 종친들이 종중의 역사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 세대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할 방향입니다. 또한 대중회는 종중의 전통과 가치를 소중히 지키는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운영과 소통 방식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종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보다 열린 대중회, 신뢰받는 대중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종중의 일은 일부의 몫이 아니라, 모든 종친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리듯, 병오년 새해에는 우리 명씨대중회가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종중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종친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명씨대중회장 명 제 태

## 延安明氏 摠郎公派(총랑공파) 靑陽入鄉(입향)과정 및 親會探訪(탐방)



연안명씨 총랑공파 23세손 명형순

### 1. 들어가며

연안명씨(延安明氏) 시조(始祖)는 대하국(大夏國)의 황제(皇帝) 이시었다. 대하국의 황제이시며 우리 연안명씨의 시조이었던 명옥진(明玉珍)은 원나라 문종 16년 1329년 수주시 수현 매구에서 탄생하여 원나라 말기 나라가 혼란해 도처에서 군웅이 할거하여 백성을 괴롭히던 때 무리들을 제압하여 군 장수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추대 받아 1361년 대하국을 건국, 국왕에 즉위한 후 선정을 베풀어 1363년 34세에 중국 촉(蜀) 지방은 물론 인접 다른 지방 일부까지 흡수하여 크게 영토를 확보 한 뒤 중경에 수도를 정하고 황제로 등극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8세 되던 해인 1366년 붕어하시어 당시 1357년 수주에서 탄생하신 승(昇) 황태자가 10세에 황제를 계승 받아 모후(母后)인 “팽”황후가 수렴 청정해 나라를 이끌어 가던 중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 태조 주원장과 수회 전쟁을 하던 때 계획적으로 적과 내통하는 등 간사하게 꾀부린다는 말인 설심주의(設心倣意)의 참모 및 중과부적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 1371년 주원장에게 나라를 내주었다.

1372년 주원장은 고려 공민왕 21년에 명승 황제와 모후 팽후등 27명을 고려국에 보내면서 불주군 불주민(不做軍 不做民, 皇訓: 임진보 1권기록) 즉 군인과 백성으로 삼지 말며 노비를 내리라는 부탁과 서신을 보내 공민왕은 나라의 손님으로 보고 예의를 갖추어 모신다는 뜻인 빈예(賓禮)로 맞이한 바 있는데

이후 귀화하였다고 전해오는 말과는 달리 1892년 발간된 임진보1권에 의하면 고사체아(考已逮我) 시조서촉왕귀순(始祖西蜀王歸順)이라고 쓰여진 기록이 있어 자진 귀화 한 것이 아닌 적국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고려국에 타의로 와 귀순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의 황훈(皇訓)대로 손님에게 예의를 갖춰 빈 예(賓禮)로 맞이하고 흥국사에 머물도록 하면서 노비와 전(田)택(宅) 공물을 받들어 제공하였다는 뜻인 공봉(供奉) 하였다고 임진보1권에 기록되어 있다.

1392년 조선 태조 이성계가 새 나라를 세워 등극 시 고려복이 아닌 당시 선진국이었던 황국(皇國)에서 오신 우리들의 공동 시조모(始祖母)인 대하국 “팽”황후가 손수 지어 올린 곤룡포를 입고 등극해 고마움의 표시로 화촉군에 봉하고 태종은 충훈세록을 내렸으며 2세 조인 승(昇)황제는 개성에 거주하면서 귀순한지 3년째인 1375년 18세 되던 해에 총랑 윤희종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인 첫째 자헌공 의(儀) 둘째총랑공,현(現) 셋째 부사공 준(俊) 넷째 시랑공 신(信) 등 4명을 낳아 복합적 차원에서 후예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하여 종족을 잘 보존 계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총랑공파 청양지역 명씨는 (9세조, 응규 [應奎] 입향조) 어느 시기 어디에서 어떤 사유,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하여 청양으로 이거(移去)해 왔는지 그 뿌리를 알고자 하였으나, 3세조부터 8세조까지 묘(墓)를 실전(失傳) 하여 조상이 이주해 왔던 과정에 대한 기록과 별다른 구전(口傳)이 없는 관계로 안개 끼어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내용을 알 수 없어 여러 관련 서적을 수소문해 힘들게 구하여 열람한바 지리서이며 역사책인 신증 동국여지승람, 여주 이 씨 홍주파 가승세고록, 쇄미록, 명씨대종회 안내문, 청양군지 명씨족보(임진보,정유보,대동보)등을 통해 관련 공통분모점을 찾아 연대와 시대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이거 해온 과정을 유추해 보았다.

2. 청양 및 호서지방 산세(山勢) 수세(水勢)영향, 총랑공파 개성~태안~예산대흥~청양 입향(入鄉) 과정 및 여주이씨홍주파 가승세고록, 쇄미록 등 청양종친회 탐방

가. 산세와 수세 영향에 따른 충효사상과 의협심이 강한 청양지역 및 호서지방

충남의 중심은 청양이다. 청양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지가 70%로 된 산골지역으로서 특이한 것은 북쪽 방향에서 백두대간을 따라오던 금북정맥(차령산맥)이 공주 유구를 거쳐 청양 운곡 효제리 분골 마을 기와(瓦) 고개까지 산줄기가 뻗어 내려왔다가 문박산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중 한줄기는 왔던 방향 반대인 비봉면 관산리를 거쳐 다시 북쪽(물레산)으로 서울 방향을 향해 약 15km 가량 거슬러 올라가다 예산 신양면 녹문리 앞 신양천에 막혀 끝나고, 다른 산줄기는 문박산에서 청양읍 학당리 아리 고개를 거쳐 보령, 홍성, 예산 당진 서산까지 갈지(之)자로 뻗어나가다 태안군 안흥 앞 바다에 산이 막혀 끝난다.

이와 관련 물줄기도 다른 곳과는 달리 산 따라 남에서 북쪽으로 북행 북류하면서 청양에서 흘러온 물줄기가 무한천과 합수 후 홍성 당진에서 예당 내포평야를 거쳐 온 삽교천이 아산 신창면에서 다시 합류하여 바다로 나가는 전국 유일 특이한 물줄기로 청양지역과 호서지방이 이런 북류형 갈지(之)자 산세 수세에 큰 영향을 받아 충효정신과 의협심이 아주 강한 김좌진, 한용운, 윤봉길, 최익현, 이순신, 이광륜 의병장 같은 항일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청양군이 인구 비례하여 전국 1위 의병이 다)

나. 총랑공파 3세 파시조 현(現) 공동 선조의 개성~태안~예산대흥으로 이거(移去) 경위

1372년 대하국에서 공민왕 21년에 이거 해온 승(昇2세조) 황제는 고려국으로 부터 빈예(賓禮)로 대우를 받고 1392년 조선이 건국될 즈음 바느질 솜씨가 탁월한 모친인 “팽” 황후가 곤룡포와 원삼 족두리(현, 구식 혼례복)를 손수 지어 올린 것을 새 나라의 왕(王) 태조 이성계와 왕비가 입고 등극하도록 하면서 궁중 관복을 만들어 보급해 고마움을 느낀 태조는 2세조 “명승”을 중국 촉(蜀) 지방에서 온 왕(王)이란 뜻인 화촉군 (유학자 손세제 박사,논어의 성립등 저자王이라고言)에 봉하고 태종은 충훈세록을 내리는 등 팽“황후의 묘를 숙릉이라 하여 국민으로 예를 다하였으나

승(昇)2세조는 본질이 중국 대하국에서 마지막 황제를 하셨던 분으로 손님인 입장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자신은 언젠가 꿈에서라도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항상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패망의 한(恨)과 향후 후손들에게 희망을 걸고 아들 4명 이름 좌측에 사람인(人) 변이 모두 들어가게 한 특이한 뜻이 담긴 한자를 써서 첫째는 거동 의(儀), 둘째는 염탐할 현(現), 셋째는 준걸 준(俊) 넷째는 믿을 신(信) 자로 이름을 짓고 후손들이 전국 여러곳으로 흩어져 살아 종족을 잘 보존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유추해 본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기사는 원작에 충실하게 집필된 내용을 토대로, 원작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유지하여 그대로 게재한 원고입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편집 외에는 별도의 수정이나 변경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년 지방 시제 참여기

## 명씨대종회 지방 시제를 다녀와서



명씨대종회 부회장 명노석

### 승조 정신으로 하나 된 명씨들의 자부심

서촉연안 명씨 종친들은 시조 황제의 얼을 계승한 승조 정신을 바탕으로 대종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종친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올해 지방 시제는 2025년 11월 22일 청양을 시작으로 12월 3일 고흥까지 순차적으로 봉행됐으며, 여러 지역의 시제 일정이 겹치는 상황에서도 종친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됐다.

### ■ 청양과 태안을 잇는 추모의 여정

11월 22일 열린 청양 시제에는 명제태 대종회장, 명광길 전임 회장, 명민식·명환주 원로, 명영식 부회장 등 임원진과 외지 종친 18여 명이 참례했다. 또한 창원 지역에서는 명기주 회장과 명희찬 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시제 봉행 이후엔 입조 선조의 산소를 참배했으며, 이어 2024년 2월 작고한 고(故) 명석호 명륜회 회장의 묘소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청양시제



태안시제



창원시제

### 지방 종친회 시제일정

지방시제 날짜와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문중	2025년 시제 일시
청양	11월 22일 11시
서산	11월 23일 11시
창원	11월 23일 11시
태안	11월 23일 11시
서천	11월 23일 12시
고흥(덕흥)	12월 03일 11시
고흥(신금)	12월 04일 11시
금산	11월 29일 11시



청양시제

고 명석호 회장은 생전 문중과 대종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별세 일주일 전까지도 명륜회에 참석해 사당 헌판 글자 수정과 시조사 책자 교정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종친들은 그의 뜻을 되새기며 선대의 유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보령에서 명한식 부회장이 마련한 만찬 자리를 통해 종친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튿날에는 태안에서 시제를 봉행한 뒤 고(故) 명귀진 전임 회장의 명복을 비는 일정을 이어갔다.

### ■ 금산 가덕사 봉행과 고흥의 화합

11월 29일에는 금산 가덕사에서 11세 입조 선조부터 19세 조에 이르는 시제가 봉행됐다. 이날 시제에는 명영식 부회장과 명기주 창원 회장을 비롯해 종친 13여 명이 참석했다. 제례를 마친 뒤에는 인삼 시장을 방문해 인삼주와 튀김을 나누며 종친 간 친목을 도모했다. 12월 3일에는 고흥 덕흥문중 시제가 열렸다. 명홍성 사장의 배려로 종친들은

편안한 숙식을 제공받았으며, 이튿날 영모제에서 153위에 대한 시제를 정성껏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명순식 자문 위원장, 명영철 사무총장, 명영수 감사 등이 참례했다. 또한 명창환 전 전남부지사와 명노희 종친의 향후 도전에 대해 종친들이 한마음으로 응원의 뜻을 모았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는 명순식 자문 위원장의 부모 묘소를 참배하고 귀경했다.

### ■ 향후 일정 조율을 통해 참여 확대 기대

명씨 문중은 높은 혈통 보존율과 함께 중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강한 결속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친들은 올해 여러 지역의 시제 일정이 중복돼 아쉬움이 남았다고 전하면서, 2026년 지방 시제부터는 일정 조율을 통해 더 많은 종친이 전국 제례에 고루 참례하며 화합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양시제



석호회장님 산소



서산시제



고흥시제



금산시제



# 명씨대중회 2026 신년하례회

## 화합의 마음, 힘찬 출발

2026.01.23(금) 오후4시 명동 퍼시픽 호텔

명씨대중회 사무총장 명영철



### 명씨대중회 2026년 신년하례회 성황리 개최- 화합과 기록으로 이어가는 명씨 가문의 미래

명씨대중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전·현직 회장단과 임원, 각 지역 종친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원로 종친들의 지혜와 경험, 현 임원진의 책임과 헌신, 그리고 지방 종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지며 명씨대중회의 결속과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 경건한 추모 속에 시작된 행사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지난 1월 5일 별세하신 고(故) 명위진 회장님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참석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의 헌신과 뜻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빌었다.

이어 명제태 대중회장의 개회 인사와 함께 신년하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 명제태 대중회장 신년사 요지

명제태 대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낙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명호근 전임 회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종친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또한 병오년 새해를 맞아 종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명 회장은 지난해 대중회 주요 성과로 대중보 재발행, 홈페이지 개편 및 누적 방문자 5만 6천 명 달성, 계미년(2003년) 이후 22년 만의 최신 전자 족보 완성을 꼽았다.

이는 명씨 가문의 역사와 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후대에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젊은 세대의 참여 부족으로 족보 증수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며, 종친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전임 회장단 축사

전임 회장단의 축사도 이어졌다. 명노승 전임 회장은 그동안 대중회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회장단과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전자 족보 완성 후속 족보 편찬 준비, 홈페이지 개편 등 대중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최근 중국 호북 탄생지 관련 인사의 방한과 업무협약, 자료 수집 과정에서 대중회와 종친들이 보여준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다. 또한 고(故) 명위진 회장의 생전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명동성 전임 회장도 고 명위진 회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중회의 신속한 소식 전달로 많은 종친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장지까지 동행해 준 수원 종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고인을 “명옥진 황제 이후 우리 가문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젊은 종친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대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청양·창원·금산 종친회 소개도 이어졌다. 청양종친회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명노연 회장과 명노섭 사무국장에게 각각 부회장 및 상임이사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명노연 회장은 “한 뿌리임을 확인하고 서로의 안녕을 묻는 이 자리가 무척 소중하다.”

고 말했다. 이어 창원종친회 명기주 회장이 주요 임원을 소개했고, 금산종친회 명병산 회장도 인사말과 함께 임원진을 소개했다. 이어 수원, 재경북부, 보령, 서천 등 각 지역 종친 대표들의 인사 말씀이 이어지며 대중회의 발전과 종친 간 화합을 기원했다. 명노희 충남 교육감은 젊은 세대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통해 가문의 명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격려의 박수로 응원의 뜻을 전했다.

명순식 자문 위원장은 2010년 고(故) 명위진 회장이 설립한 장학회를 언급하며,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회고했다. 가문의 인재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 뜻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에 깊은 의미를 두면서도, 장학회의 운영과 계승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함께 전했다.

### 2025년 사업 결과 및 향후 계획

이어 2025년 대중회 주요 사업 결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신년하례회, 중경 예릉시 제참석, 정기총회, 명옥진 황제 추향대제 지방 시제 참여, 대중보 발간, 홈페이지 개편, 전자족보 완성 등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활동들이 공유되었다. 또한 명옥진 황제 제660주기 참배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다. 23일 출발해 24일 시제를 봉행한 뒤, 양자강 멜로디 크루즈를 통해 제1협곡(구당협곡)과 무협 협곡 등 양자강의 장엄한 절경을 선상에서 감상하는 일정이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공유한 뒤, 기념사진 촬영과 함께 종친 간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가지며 2026년 신년하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천견산에서 마무리한 2025년 명대산악회 산행

명대산악회는 지난 12월 천견산 산행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이어온 산행 일정을 뜻깊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산행은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회원들이 끝까지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연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서로의 걸음을 맞추는 시간이 이어지며, 한 해를 함께 걸어온 동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천견산에서 진행된 이번 산행은 지난 시간 동안 이어진 산악회의 발걸음과 회원 간의 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산이 품은 기운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수고에 마음을 전했고, 산행 이후에는 소대감식당에서 마련된 식사를 통해 한 해의 기억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일정에서는 명제태 대총회장이 산행과 마무리 자리를 세심하게 준비해 회원들의 기운을 북돋았으며, 이러한 배려는 산행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또한 산행 후 봉영사 경내에 위치한 하심커피숍에서 커피 타임을 통해 잠시 숨을 고르며 여유를 나눌 수 있도록 한 명영수 감사의 배려도 더해졌다. 늘 곁에서 함께하며 든든한 힘이 된 명성순 상임이사의 역할 역시 회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었다.

매 산행마다 정상에서 나눌 술을 준비해온 명노석 대총회 부회장과, 산행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20년 된 인삼주와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온 명영식 산악회장의 노고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감사가 이어졌다.

명대산악회는 한 해 동안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 걷는 산행의 기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천견산 산행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동시에,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 2026년 명씨대총회 총회 개최

제48차 정기총회 안내 2026년 5월 5일(화) 11시 장소 | 파주 경모사

### 2026년 명씨대총회 제48차 정기총회 안내

2026년 명씨대총회 제48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상의 얼을 기리고

대총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어 자랑스러운 황손의 후예로서  
우리 명씨대총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함께 기원하고,

종친 상호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명씨대총회 회장 명제태 배상



일시 | 2026년 5월 5일(화) 11시

장소 | 파주 경모사

明氏大宗會

### 찾아 오시는 길

P

주차안내 : 자가용

강변북로 → 자유로 → 당동IC → 37번 국도 → 법원리 방향



네비게이션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408번길 49

버스 이용 시

경원선 종점 문산역 하차 후 택시 이용

(택시비 약 10,000원 내외)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408번길 49

문의

사무총장 명영철 (☎ 010-8551-6936)

찬조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92801-04-176571

명씨대총회는 종친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대총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明氏大宗會

# 수현 유림진 투자협약 관련 관계자 방한 일정 소식

## 수현 유림진 인민 정부와 한국 명씨대중회, 경제협력 투자 협의 체결

명씨대중회는 2026년 1월 9일부터 14일까지(5박 6일), 중국 후베이성 수현(隨縣) 유림진 관계자들의 방한을 맞아 한·중 문화관광 협력 및 투자 강화를 위한 공식 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방한에는 대하(大夏) 황제 명옥진 연구의 권위자인 정위국 선생과 산월수인 문화관광공사 송옥동 대표가 함께하였으며, 양국 간 역사·문화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방한 기간 중 「산월수인·명옥진」 한·중 문화관광·경제협력 투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명씨대중회는 본 협약에 따라 25만 위안(한화 약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산월수인 문화관광 공사와 함께 명옥진 황제 기념관 연계 문화관광 사업과 한·중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협약은 명씨대중회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이번 투자 협약의 주요 내용은 명옥진 황제의 역사와 대하 명씨 문화를 중심으로 한 기념관 연계 문화관광 사업의 공동 추진, 전세계 명씨 종친과 후손을 대상으로 한 뿌리 찾기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문화관광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한·중 경제협력 모델 구축에 있다.



### 주요 방문 일정

- ✔ 파주 경모사, 파안 기념관 방문
- ✔ (주)자야 방문(명제태 대중회장) 서각작품 '근고지영(根固枝榮)' 기증
- ✔ 서울 퍼시픽호텔 한·중 문화관광 투자 협약식 및 계약 체결 (총회 의결 사항)
- ✔ 윤봉길 의사 기념관 방문 명노승 전 대중회장, 친필 족자 증정 및 만찬

이번 일정은 명옥진 황제 이후 명씨 후손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되짚고, 현재의 삶과 종중의 활동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아울러 관련 자료의 탐색과 수집, 제조업체 방문 등을 통해 향후 문화관광 및 교류 사업의 실질적 기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명씨대중회는 이번 투자 협약과 방한 일정을 계기로 수현 유림진과의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명옥진 황제의 역사와 명씨 가문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다.

〈명씨대중회 편집국〉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태흥산업기전(주)** ■ 태흥기전: 명영준(25세손)

수 •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전문 제작업체

## 30여년간 전통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부한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taeheungsanup.co.kr](http://www.taeheungsanup.co.kr)

수, 배전반    Moter제어반    중앙감시제어반

계장제어반    분전반    출전기    집합 계량기함



고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저압배전반



분전반반

# 명씨대중회의 큰 어른 명위진 회장 별세

가문 화합과 사회 공헌에 평생 헌신-사람에 대한 투자, 나눔으로 남은 삶



명씨대중회의 원로이자 가문과 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명위진 회장이 1월 5일 오후 1시 36분경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1941년 출생으로 본적은 충청남도 청양군이며, 대하 명옥진 황제의 20세손이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가문의 맥을 잇는 한편,

선조의 명덕을 계승하며 중중과 사회를 잇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명 회장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중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재임 동안 중중의 조직을 정비하고 종법을 바로 세워 종친 간의 결속을 다졌으며, 흐트러졌던 계보를 정리해 종풍을 크게 진작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중 구성원들의 의견을 아우르며 화합을 끌어낸 점은 고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가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대아공무주식회사 회장으로서 사업을 성장시키며 국민 경제에 이바지했고, 대하장학회, 파안장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교육과 학문 진흥에 힘썼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고인은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영예를 넘어, 가문과 사회를 위한 헌신이 국가적으로 평가받은 사례로 기록된다. 또한 뿌리 공원에 명씨 조각상을 세워 선조의 위업을 기리고 후대가 가문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명 회장은 평생 강건함과 인자함, 성실함을 바탕으로 원대한 포부를 실천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자신의 업적을 앞세우기보다 조용한 실천을 중시했으며, 장학과 송문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사명으로 삼아왔다. 명노석 부회장은 추모 글을 통해 “회장님께서 일구신 부는 개인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였다”라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셨던 겸손과 나눔의 정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슬픔에 머무르기보다, 고인이 남긴 나눔의 유산이 앞으로 문중과 사회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뜻을 기리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도 고인의 별세를 애도하는 추모 메시지가 전해졌다. 중국 명씨 종친과 관련 단체들은 조문 글을 통해 “명위진 회장은 종친 간 화합과 전통 계승에 힘쓴 원로로, 한·중 명씨 종연을 잇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며 “그의 덕망과 업적은 국경을 넘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인이 선조의 위업을 기리고 후대를 격려해 온 행보가 중국 종친 사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명씨대중회 종친들 역시 고인의 별세를 깊이 애도했다. 종친들은 “평생을 가문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사회 공헌에 헌신한 큰 어른을 떠나보내게 돼 안타깝다”라며 “고인이 남긴 삶의 자세와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중중과 사회를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위진 회장이 남긴 정신은 한 개인의 업적을 넘어 후대가 함께 계승해야 할 공동의 유산”이라며 “종친 간 화합과 나눔의 가치가 국내외 종친 사회와 연대 속에서 이어지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명위진 회장을 떠나보내며, 가문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그의 삶을 깊이 추모한다.

〈명씨대중회 편집국〉



## 정담의전

■ 정담의전: 명재익(24세손) 010-9922-0042

장례서비스, 전액 100% 후불제  
믿을 수 있는 정담의전이 함께합니다.

명씨대중회와 협약된 정담의전은 거품 없는 합리적 가격과 품격 있는 장례 토탈 서비스를 전액 후불제로 제공합니다.

상품가격 330만원



상담 전화

장례 절차와 상품 예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1644-1350



임종 전화

임종 접수 및 신속한 대응으로  
유가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1588-4844

모든 장례는 3일 기준으로 합니다 | 서비스 지역: 전국구 (도서, 섬지역 불가) | 명씨대중회와 장례서비스 제휴업체 정담의전

### 종친 애, 경사 및 동향

**부고** 2025.12.27 명순식님 장인 안영준님 별세  
 2026.01.05 명위진님 별세  
 2026.01.17 명노관님 별세(청양)



### 명씨대중보 문의 및 구독신청

- ▶ 명씨대중보 발행인  
명제태 회장 010-2399-6233  
이메일 jayatool521@naver.com
- ▶ 명씨대중보 편집국장  
명영식 부회장 010-6233-8204  
이메일 mys3540@hanmail.net
- ▶ 명씨대중보 편집인  
명영철 사무국장 010-8551-6936  
이메일 my1857@naver.com

### 명씨대중회 종친 회비 및 후원계좌 안내

명씨대중회 발전을 위해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후원 계좌입니다  
 국민 392801-04-176571  
 명씨대중회

본 면은 광고란입니다.  
 광고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명씨대중보 기사투고 및 광고안내

- ▶ 명씨대중보는 3개월에 1번씩, 연간 4회 발행되는 우리 명씨의 신문입니다.  
 기사 및 사진 투고는 연중무휴 가능하오니, 종친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 (주) 비경

페인트, 방수 시공 전문 업체

경기도 의왕시  
1위 업체



福 을 칠해 드립니다.



■ (주)비경 : 대표 명노성(23세손) 010-3799-5700

- 빌딩 / 상가 / APT
- 병원, 주차장, 옥상
- 방수 및 단열 공사
- 시공 전문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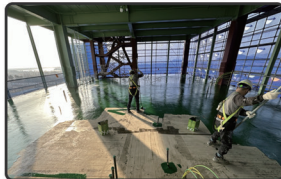
Tel. 031-462-5507  
 FAX. 031-462-5508  
 Email. bkc9704@naver.com



상업, 주거시설  
내·외부 도장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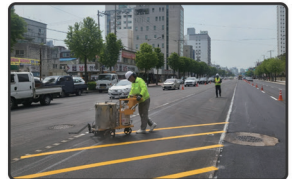
조형물 등  
특수 도장 공사



옥상, 주차장바닥  
방수 및 에폭시 공사



우레탄 단열공사  
내화, 흡음 뽐칠 공사



주차장, 도로, 공원  
차선 도색공사

## 보령건강원

■ 보령건강원: 명남식(22세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건강원제품 ]



배즙



비트즙



양파즙



홍삼



자라



대추



장어



흑염소



붕어



가물치



전국 택배 가능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길8(우리은행 앞)  
 Tel. 031)461-1939 H.P 010-3778-0247